

매개된 종교와 사회 변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중심으로*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그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을 ‘매개된 종교’가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적 잠재력을 드러내 준 사례로 규정하고, 교황 방한 기간 중 5개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된 교황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분석했다. 교황 관련 기사들이 대체로 교황의 언행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교황과 동일시한 가치’와 ‘반(反)교황과 동일시한 가치’의 이항대립을 찾아 유사한 가치들끼리 범주화 했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해석했다. 이를 통해 각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교황을 매개한 언론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향에 대해서 일관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종교가 담론적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대안적 가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세속 사회의 기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EYWORDS 매개된 종교, 언론, 사회 변화, 프란치스코 교황, 진보 담론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jinpark@swu.ac.kr

1. 들어가는 말

마르크스주의 문화학자 이글턴(Eagleton, 2009)은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에서 “종교의 잔혹성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세속 좌파는 종교에서 배울 바가 있다. 안 그래도 새로운 발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좌파에서 이처럼 좋은 선물을 놓고 트집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216쪽)고 말한다. 이 발언은 자본주의 사회 내 종교를 “인민의 아편(opium of the people)”으로 규정한 마르크스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글턴은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으며, 이 오해는 제도종교의 현실과 종교의 이상적 역할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적절히 읽어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종교는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되어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대안적 가치의 소중한 원천으로 기능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의 근거와 나아가 사회 변화(social change)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의 잠재력을 ‘새로운 발상’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찾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변화를 위한 종교의 잠재력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드러낸 여러 징후들을 읽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기대는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주 발견된다. 제도종교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문화 엘리트들의 인식에서도,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상화하는 사례를 발굴, 보도하는 신문 종교면 기사에서도, 유명 종교 지도자의 죽음을 보도하며 일종의 ‘영웅 신화’를 생산해 내는 미디어의 재현에서도 이러한 징후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잠재적 역할은 주로 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대중들에게 현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질서를 대체할 대안적 가치를 제공하고 그러한 가치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적 상상력(popular imagination)을 불러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¹⁾의 방한과 그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을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적 차원의 잠재력을 드러내 준 사례로 규정한다. 4박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황의 방한은 언론이 “교황 열풍”, “프란치스코 현상” 등으로 부를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충격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과 맞물린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신성

1) 이번 방한 기간 중 제국주의적 함의가 내포된 ‘교황(敎皇)’ 대신 ‘교종(敎宗)’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가톨릭 내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지만, 여기서는 대다수 언론이 사용한 ‘교황’을 그대로 쓴다.

함(the sacred)과 세속(the secular)이 교차하는 비일상성을 경험하는 일종의 “리미날리티(liminality)”(Turner, 1977)를 체험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진보적 가치와 의제가 한국 사회의 담론 영역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가톨릭이라는 특정 제도종교의 수장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하지만 그의 방향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특히 언론의 반응은 성(聖)과 속(俗)의 전통적 구분을 파괴,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다종교의 공존이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종교적 맥락 속에서 교황에 대한 세속 사회의 뜨거운 반응은 여러 제도종교 사이의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는 암묵적 규범을 파괴한다는 점에서도 일탈적이었다.²⁾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를 특정 제도종교의 특수성을 떠나 종교 일반이 담당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expectation)가 구성되고 표출된 현상으로 읽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은 교황 방한 전후와 방한 기간 내 게재된 일간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함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세속 사회의 반응이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갖는 함의를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아래 종교, 종교에 대한 언론의 매개(mediation), 그리고 사회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다.

2. 이론적 맥락

1) 사회 변화와 종교

종교와 사회 변화의 관계에 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종교는 사회 변화보다는 사회 유지의 도구로서 인식되어 왔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규정한다(Glock & Stock, 1965). 종교는 사회의 기본적 상징과 가치, 규범의 근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와 응집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갈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종교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마르크스(Marx, 1964)는 종교가 현상 유지

2) 이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보인 기사의 예로는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 “박 대통령, 종교 관계부터 정상화하라”(2014. 8. 19)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사는 정부가 이번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status quo)를 정당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정치적,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지배계급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를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탄식, 비정한 세상의 감정,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으로 규정하고, 이는 곧 “인민의 아편(opium)”이라고 비유했다(p. 27). 알튀세르(Althusser, 1971) 역시 가족, 미디어, 교육제도와 함께 종교를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관(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SA)”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욕망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거스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르는 이글턴(Eagleton, 2009)은 종교가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제도종교의 보수적 실천에 대한 것이지, 종교 혹은 영성이 갖는 저항적 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공격한 종교는 실리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교, 즉 영적인 것을 현실에서 분리하여 감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유형의 종교였다. (중략) 종교적인 환상은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저항을 나름대로 대리하는 부분이 있다. 문제의 방향을 보여 주는 표지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비록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59-61쪽).

즉, 이글턴은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면서 종교의 해방적 역할을 상징적, 담론적 영역에서 찾는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적 가치와 질서 때문에 점차 소멸되어 가는 영적, 비물질적 영역이 내포한 대안적 가치들을 살려내는 소중한 원천으로서 종교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학자와 경제학자인 스킨델스키와 스킨델스키(Skidelsky & Skidelsky, 2012)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케인스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7개의 “기본재(basic goods)”를 제시하는 사회의 재구조화(reorientation)를 주창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 변화를 위한 종교의 잠재력을 말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종교의 지원이 필요할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6장에서 소개된 것 같은 기본재들이 어떠한 특정 종교 교리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아마도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을 권위와 영감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종교적 영감을 완전히 배제한 사회가 공동선을 추구

하는 쪽으로 길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349쪽).

이들은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종교는 개인과 사회적 삶의 새로운 방식, 대안적 질서에 대한 대중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종교의 역할을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종교 사회학’이라는 학문전통으로 구성된다(O’toole, 1984). 이들은 보수적, 반동적 기능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종교 분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혁명적 사회 변화에서 작동하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에 폴란드 노조운동이 갖는 종교적 성격과 이슬람 근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란의 혁명, 종교적 영감으로부터 출발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운동 등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 변화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사례가 된다(김성건, 1991. p.112).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종교의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이들에게는 담론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담론적 차원에서 종교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대안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와 질서가 지배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제공하는 이러한 가치의 대안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지배하는 삶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향한 욕망을 생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개된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2) 매개된 종교

매개(mediation)는 원래 조정, 중재, 화해라는 정치적, 법률적 의미로 쓰였지만 ‘미디어’ 혹은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고 그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로 미디어의 매개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Williams, 1983). 리빙스톤(Livingstone, 2009)에 따르면, 현대는 “고도로 매개화된(heavily mediated)” 세상이며 사회 내 모든 영역과 그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이미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이러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지 않다(p. 2).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매개는 미디어의 개입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가 덧붙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미디어의 매개는 한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영(reflection)이 아니라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프랑크 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매개는 주로 ‘구성(construction)’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는 점(Edgar & Sedwick, 1999)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개’를 대신해 ‘미디어화(mediatization)’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Hjarvard, 2008; Lundby, 2009)은 미디어 개입이 불러온 결과 혹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화는 일상의 모습과 사회적 관계가 점차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미디어 조직에 의해서 구성되어가는 거시적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개념은 사회 각 제도가 미디어, 그리고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transformations)’되어 가는지를 탐색하고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Lundby, 2009).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media, religion, and culture)”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개입을 ‘매개’로 볼 것인지 ‘미디어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Lövheim & Lynch, 2011). “종교의 미디어화”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히아바드(Hjarvard, 2008)는 미디어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종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첫째, 미디어는 사회 내 종교적 쟁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둘째, 미디어는 종교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유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미디어의 요구에 맞춰 종교적 경험들을 새롭게 생산해 내기도 한다. 셋째, 미디어는 도덕적, 영적 지도력의 행사나 공동체 의식의 형성 등 전통적으로 제도종교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화’ 대신 ‘매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매개는 사회 내 한 영역과 미디어 사이의 관계 및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매개 과정이 갖는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일 뿐 아니라, 미디어화가 주목하는 효과와 변형까지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Livingstone, 2009)에 더 유용하다.

위에서 언급한 매개의 특성 때문에 종교의 매개 역시 필연적으로 종교 그 이상의 것을 함의한다. 후버(Hoover, 2014)는 종교의 매개는 종교에 관한 상상(imagination)을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종교의 매개를 “종교적인 것들(the religious)”이 매개된 담론을 통해서 상상되어지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된 종교는 종교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서 벗어나 그 사회와 문화 내 존재하는 각종 담론, 규범,

3) 한국의 미디어학 내에서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사실 미디어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종교를 사적,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이 상식화된 학문적 배경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나의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미디어학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교황 방한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영역의 교차 사례들은 미디어학의 시각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을 요청하고 있다(이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연구 영역 및 주제에 관한 논의는 박진규(2009)를 참조하라).

집단기억 등과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관심사인 저널리즘의 매개를 통해 구성되는 종교의 의미는 더욱 흥미롭다. 저널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 내에서 승인되고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을 전제로 한다(Tuchman, 1978). 따라서 저널리즘이 매개한 종교는 곧 종교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지 등을 세속 사회의 언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이 매개한 종교는 ‘이상화된 종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상이 되며, 이를 통해 세속 사회가 종교에 ‘기대(expectation)’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미디어와 종교라는 두 영역이 서로 만나는 다양한 지점은 이러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대는 제도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생산하는 문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담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박진규, 2008),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이상화(idealize)할 수 있는 인물과 집단을 발굴하여 보도하는 일간신문의 종교면 기사(박진규, 2011)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제도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을 보도하며 이들의 삶과 죽음을 ‘종교 영웅 신화(religious-hero myth)’로 재생산하는 미디어의 재현에서도(Park, 2011) 발견된다.

하지만 이런 종교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는 제도종교에서는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제도종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나 미디어가 종교를 재현하는 방식이 점점 더 비판적이 되는 현상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둘러싸고 나타난 세속 사회의 뜨거운 반응과, 이에 대한 미디어의 매개는 사회 변화를 위한 종교의 담론적 역할에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사례였다.

3)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

이번 교황의 방한과 이를 둘러싸고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다. 개별 종교의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인물에 대한 반응으로는 매

4) 한국의 현대사에서 종교와 사회 변화의 관계는 역동적이다.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봉사하는 가운데에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펼쳐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진보적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보수 세력의 지배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강인철, 2012). 특히 2000년 이후 개신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도덕적 수월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 나타난 이른바 “윤리적 역전” 현상(강인철, 2013)은 제도종교가 사회 변화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우 이례적이었으며,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온 사회가 주목했고 반응했다. 사실 이러한 현상에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황의 방한 전 과정이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재현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교황 개인과 그의 방한을 둘러싸고 미디어가 부여한 의미는 종교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⁵⁾

사실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또한 바티칸 시국의 대표로서 교황의 발언과 행보는 종교적, 외교적 이해관계에 대한 득실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황 자체나 그가 보여 준 언행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반응은 교황이라는 종교적 상징에 대한 세속적 해석이 동반되는 것이며, 특히 그 해석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가 교황을 가톨릭이라는 제도종교만의 인물로 가두어 놓지 않으려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그를 향한 열광적인 반응을 특정 종교의 의례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함의를 지니는 “시민종교(civil religion)”(Bellah, 1975)의 현상으로 틀 짓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례를 언론의 가톨릭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아니라, 종교 일반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언론이 매개한 것으로 확장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내내 여러 차례 강한 진보적 성향의 발언과 행동을 보임으로써,⁶⁾ 이에 대한 언론의 매개를 통해 종교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가 지니는 정치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발언 가운데 “평화는 정의의 결과,”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 “물질주의 비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연대” 등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모순, 시장주의 및 자유주의의 한계, 물질(만능)주의적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발언은 교황 개인의 개혁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언론의 매개는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종교가 갖는 함의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5) 교황의 입국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황의 방문은 아시아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다는 종교적 목적이 우선이지만 방한이 주는 울림은 종교의 울타리에 그치지 않았다”(《조선일보》, 2014. 8. 15). 다른 많은 사설과 칼럼에서도 이처럼 교황 방한의 의미를 종교적 영역 안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표현이 많았다.

6)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한 책 《교황과 나》를 저술한 해방신학자 김근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황의 발언을 그대로 하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대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2014. 8. 18. <http://www.poddbang.com/ch/7657?e=21469000>).

3. 방한 기간 중 사설 및 기명 칼럼 분석

이 연구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관련한 언론의 매개가 갖는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일간신문 사설 및 기명 칼럼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교황의 방한(8월 14~8일) 시작 하루 전과 이한 이틀 후인 13일부터 20일까지 5개의 중앙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된 사설과 칼럼 중 교황과 관련한 기사들로 했다. 이 기간 이전과 이후에도 교황 관련 기사들이 간간히 게재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은 기사들이 집중되었던 위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했다.

스트레이트성 기사들도 교황과 관련한 보도를 양산했으나 교황의 언행에 대한 의견, 태도, 평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사설 및 칼럼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방한 기간 중 진보적 발언과 행동을 강하게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반응이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상적으로 보수 매체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분석 대상 매체로 선택했다. 기사는 각 신문사의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했는데, 검색된 사설 및 칼럼은 총 81개였으며, 각 신문별 분석 기사 수는 〈표1〉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은 홀(Hall, 1975)의 문예비평분석방법론(literary-critical analysis)에 따랐다. 홀은 실제 분석에 앞서 연구자가 분석 대상에 깊게 침잠(soak)하는 과정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주요 테마가 스스로 부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절차나 방법론의 엄밀성에 함몰되어 자칫 데이터 자체가 가진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한 사설 및 칼럼들이 대체로 교황의 언행

표 1. 분석 기사의 매체별 구성

매체	분석 기사 수
중앙일보	21
경향신문	19
한겨레신문	15
동아일보	14
조선일보	12
합계	81

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전체 분석 기사 중 교황 개인이나 교황 방한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거나 평가한 기사는 전체 81개의 기사 중 5개(〈동아〉 2, 〈중앙〉 2, 〈한겨레〉 1)에 불과했다.⁷⁾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교황과 대비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함께 동반하는 수사학적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언론의 매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교황으로 대표되는 ‘종교’ 일반에 대하여 세속 저널리즘이 기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런 가치가 요청되는 현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 평가하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 분석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사설 및 칼럼에 사용된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을 찾아내고 분석했다. 즉, 각 기사들에서 ‘교황과 동일시한 가치’와 ‘반(反)교황과 동일시한 가치’를 각각 찾고, 이를 유사한 가치들끼리 모아 범주화했다. 또한, 이렇게 범주화된 가치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매개된 종교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해석했다.

4. 교황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미디어의 매개

모든 사설과 칼럼이 교황의 방한과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신문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라 교황의 발언이나 행보에서 선택과 배제를 통해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자사의 평소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언론에서만 아니라 교황의 방한이 만들어 낸 한국 사회의 반응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회 일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⁸⁾

보수적 성향의 매체에서는 교황의 발언 가운데 주로 남북 분단과 관련해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국내적 사회 통합을 위한 ‘화해,’ ‘화합,’ 그리고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의 개인적 변화를 강조했고⁹⁾, 진보적 성향의 매체에서는 사회구조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경

7)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송평인 칼럼 “박 대통령, 종교 관계부터 정상화하라”(〈동아일보〉, 2014. 8. 19); [김순덕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곤 경제학’”(〈동아일보〉, 2014. 8. 18); “중앙시평: 북한 주민 고통에 침묵한 교황”(〈중앙일보〉, 2014. 8. 20); [이철호의 시사각각 “교황까지 편 가르느 두 개의 시선”(〈중앙일보〉, 2014. 8. 18); [왜냐면 “신학자 김근수가 쓴 ‘교황과 나를 추천한다’”(〈한겨레〉, 2014. 8. 15).

8)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 사회엔 아프고 슬픈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경시, 무절제한 욕망 등 사회 밑바닥의 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다. 사고의 수습과 해법을 놓고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교황이 자기편이 돼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들도 있다”(〈조선일보〉, 2014. 8. 15).

제 모델을 비판하는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개혁과 변화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4월부터 이어진 이른바 ‘세월호 국면’의 갈등 상황에서 교황의 발언과 행보는 이런 해석의 차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언론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와 주제들이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드러난 공통적 가치들은 개별 현안이 갖는 특수성에서 벗어나, 언론이 매개하는 종교의 일반적 역할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교황의 발언과 행보를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전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일반적 차원에서는 각 신문들의 이념적 성향과 크게 관련 없이 공통적인 가치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맥락 속에서 세속 사회가 종교에 기대(expectation)하는 역할의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 준다고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를 ‘교황에 동일시한 가치’와 ‘반(反)교황에 동일시한 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황과 관련한 사실 및 칼럼의 담론을 재구성하면, 종교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매개하는 언론이 종교를 통해 투사하는 가치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 낼 수 있다.

1) 교황의 가치

분석 대상의 사실과 칼럼들은 대체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¹⁰⁾ 따라서 교황에 동일시한 가치들은 주로 개인적 성품이나 행동, 그에 관해서 알려진 사항, 그리고 방한 중의 발언과 행보 등 교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된 것들로

9) 분석 대상 이외의 언론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교황의 방한이 시련 속 우리 사회에 ‘힐링’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외신들에게는 교황을 진정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화제다. 단순히 교황에 환호하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을 넘어 교황 방문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적인 긍정의 분위기, 질서정연함 속에 교황의 행보에 주목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천주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교황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삶에 반영하고, 희망을 찾는 열정,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된 미래를 추구하는 능동적 행태 등 교황의 방한이 불러일으킨 우리 국민들의 긍정 에너지는 외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주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내용 중 하나다.” (최두선의 나비효과 “프란치스코 교황과 ‘어벤저스2’의 한류 평행이론, 의미는?” 〈이투데이〉, 2014. 8. 18.).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감동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일은 아주 기본적으로 작은 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것,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근본이 된다”(마음코칭 “교황 향한 시선으로 나를 보자”, 〈서울경제〉, 2014. 8. 15).

10) 교황 방한 기간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에 게재된 교황관련 기사 전체를 분석한 김민수(2014)는 5개 신문 모두 이념적 정향성에 상관없이 교황 방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보도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평가한다.

서 기사가 승인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유사한 표현들을 묶어 보면 <표 2>와 <표 3>과 같이 16개로 나눌 수 있다. 각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표 2>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 3>에 정리했다.

두 개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황에 동일시된 가치에서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가치들에 대한 표현이나 강도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분류된 가치들의 종류는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보수 매체에서는 교황과 동일시한 가치들을 정치인 및 종교 지도자 개인의 차원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고, 진보 매체에서는 “약자의 편”, “사람중심”, “정의”, “연대” 등의 가치에 대하여 더 강조했다.

<표 4>는 앞에서 도출한 16개의 가치들이 지닌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유사한 가치들끼리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각 범주의 이름은 각 가치들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 부합하는 의미가 살아나도록 했다.

표 2. 교황에 동일시된 가치들 (<조선>, <동아>, <중앙>)

가치	기사에 사용된 표현
소탈과 겸손	소탈 / 겸손 / 소박 / 청빈 / 검소 / 겸허 / 낮춤 / 작은 것 / 파격 / 평범
인간미	인자 / 따뜻한 인간미 / 순수함 / 온화함 / 미소 / 일상적
사랑	우정 / 사랑 / 자비 / 연민 / 애정 / 안아줌 / 배려 / 섬김
진실한 말	부드러운 언어의 위대함 / 진정성 / 담론의 진실함 / 감동 / 설득
소통	소통 / 공감 / 대화 / 세상에 대한 이해 / 눈 맞춤
위로	따뜻한 위로 / 위안 / 어루만짐 / 울어줌 / 희망 / 함께 아파함 / 달래줌 / 용기 / 치유
실천	단호 / 언행일치 / 숭선수범 / 말과 행동의 일치 / 몸으로 보여줌 / 사람들 속 / 삶으로 증명
약자의 편	가난한 사람들 / 빈자 / 소외된 이들 / 사회적 약자 / 상처 입은 사람들 / 낮은 곳 / 취약 계층 / 버림받은 사람들 /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정의	정의 / 평화는 정의의 결과 / 옳은 말 / 공평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연대
사람 중심	인간 가치 / 생명 / 인간의 존엄성
정신적 가치	무소유 / 내적 성스러움 / 반성
공동선	공동체 정신 / 공동선
관용	관용 / 포용 / 상호존중 / 열린 마음 / 종교와 인종 벽 넘음 / 종교를 강요하지 않음
화해	화해 / 평화 / 용서 / 일치 / 형제애 / 조화 / 이해 / 협력
개혁	개혁 / 용기 / 쇄신 / 혁신 / 인류의 진보

표 3. 교황에 동일시된 가치들 (<한겨레>, <경향>)

가치	기사에 사용된 표현
소탈과 겸손	소탈 / 겸손 / 소박 / 청빈 / 겸허 / 청빈 / 낮춤 / 낮은 자세 / 파격
인간미	인자 / 꾸밈없음 / 애뜻한 눈 및 / 따뜻한 손길 / 넉넉함 / 친근 / 따뜻함
사랑	사랑 / 자비 / 섬김
진실한 말	진실한 말 / 진정성 / 진심 / 일상 / 말 없는 말 / 분명한 메시지
소통	소통 / 경청 / 공감 / 대화 / 교감 / 감동 / 참을성 있게 들어줌
위로	위로 / 위안 / 울어줌 / 배려 / 통곡 / 격려 / 치유 / 희망 / 진실한 존중 / 용기
실천	행동 / 실천 / 언행일치 / 몸으로 보여줌 / 단호한 행동 / 현장 / 육화된 신앙
약자의 편	약자 / 소외된 이들 / 고통 받는 자 / 가난한 이들 / 낮은 곳 / 궁핍한 이들 / 힘없는 자 / 난민 / 상처 받은 사람들 / 빈자 / 사회, 경제적 약자 / 목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 / 아래를 향한 전략
정의	평화는 정의의 결과 / 사회 정의 / 진리 / 공정성 / 원칙 / 공정 / 투명성 / 양심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연대 / 협력 / 연대의 세계화 / 형제애의 공동체 / 우애
사람 중심	사람 중심 / 생명 / 돈보다 생명 / 인간존엄성 / 인간적인 것 / 인륜성 / 인간의 권리 / 인간에 대한 예의 / 인간애 / 인간다움 / 인본주의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와 문화 / 영혼 / 무아 / 무소유 / 맹성(猛省)
공동선	공동(공)선 / 공적인 책임 / 공동체의 삶
관용	관용 / 유연한 자세 / 열린 마음
화해	화해 / 평화 / 용서 / 통합
저항	저항 / 개혁 / 변화 / 정치 참여 / 사회혁신 / 딱 세상의 신앙 / 새로움 / 맞서 싸우라 / 깨어 일어남 / 거부 / 배척 / 혁명성 / 바꾸라 / 진보 / 발전

표 4. 교황 가치들의 범주화

범주	교황의 가치
종교인의 자격	소탈과 겸손 / 인간미 / 진실한 말 / 사랑
종교(인)의 역할	위로 / 소통 / 실천
종교의 과제	약자의 편 / 정의 /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 개혁 · 저항
대안적 가치	사람 중심 / 정신적 가치 / 공동선 / 관용 / 화해

먼저, 소탈과 겸손, 인간미, 진실한 말, 사랑 등은 ‘종교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묶을 수 있다. 국산 소형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모습들에서 이런 가치들은 칭송되었고 자주 “파격”이라고 묘사되었다. 또 교황의 간결하면서도 진실한 발언과 수사법의 힘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들도 많았다. 이러한 가치들은 교황 개인에게 그치지 않으며, 종교인 혹은 종교 지도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자격들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위로, 소통, 실천 등은 ‘종교 일반 혹은 종교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로 이름 붙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소통’은 방한 당시 세월호 쟁점과 관련해 정부 및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각된 가치였는데, 매체의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지되었다. “실천”은 그동안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제도종교 및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교황과 대비시키면서 강조된 가치였다. 이는 종교가 개인적 차원에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주기를 요청하는 세속 사회의 기대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약자의 편, 개혁/저항, 정의,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등은 대부분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된 가치들이었다. 기사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 모습들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매우 강하게 지지했다. 특히 교황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뿐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인물로 재현되었다. 그가 강조한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요청하는 메시지도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교황이 사회악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항하는 모습에 대한 재현에는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수 매체는 교황의 이런 특성을 개혁, 혁신, 인류의 진보 등으로 표현한 반면, 진보 매체에서는 이를 저항, 항거, 거부, 혁명성 등으로 표현했으며 교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표 2>에서는 이를 “개혁”으로, <표 3>에서는 “저항”으로 각각 명명하여 그 차이를 보여 주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사들이 사람 중심, 정신적 가치, 공동선, 관용 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차이가 없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특히 이 가치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대신할 “대안적 가치”로서 제시되었다. 뒤에서 살펴볼 반(反)교황 가치 중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규정된 물질주의와 무한경쟁, 비인간적 경제모델 등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의 투사에 기초가 되는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관용”은 주로 교황이 다른 제도종교와의 대화, 포용,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지지할 때 사용된 가치다. 따라서 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아가 사회 내 모든 영역에서 다원성을 강화하고 다름과 차이에 대한 열린 태도와 포용을 지지하는 진보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조화”는 양가적(兩價的)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보수 매체에서 조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지만, 진보 매체에서는 무한경쟁과 효율성이라는 현재의 질서를 대체하는 공동체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대안적 가치로 제시되었다.

2) 반(反)교황의 가치

앞서 ‘교황의 가치’가 기사들이 승인한 가치들이었다면, ‘반(反)교황의 가치’로 정리한 것들은 교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상대적, 대립적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실 및 칼럼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기술할 때 그와 대립하는 가치들을 병기함으로써 긍정적인 면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수사법이 사용되었다.¹¹⁾ 역시 각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표 5〉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 6〉에 정리했다. 이를 위해 사용된 표현들은 〈표 5〉의 10개와 〈표 6〉의 12개로 정리할 수 있다.

위의 두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보수 매체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진보 매체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진보 매체는 제도종교와 종교 지도자가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교황과 비교함으로써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고통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교황의 발언¹²⁾과 연결하여 정치 지도자 및 사회일반의 가치중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 매체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비인간적 경제모델”과 “경제적 불평등”은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에 모두 등장

11)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한 칼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교황의 방한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을 한다. 그것도 남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 새로운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본의 논리와 경제적 욕망, 정치적 승리와 권력을 독점하여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교황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새로운 독재에 침묵하지 않고 깨어나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신승환, [시론] “교황이 남긴 과제 ‘실천’”, 〈경향신문〉, 2014. 8. 19).

12) 교황은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과 칼럼에서 매개한 교황의 모습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지지하는 집단과 대립하는 집단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황의 편”과 “교황의 상대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나아가 “종교의 편”과 “종교의 상대편”으로 확대해볼 수 있다.

표 5. 반(反)교황에 동일시된 가치들 (<조선>, <동아>, <중앙>)

가치	기사에 사용된 표현
권위	권위 / 권위주의 / 거창한 몸짓 / 대단한 말 / 위엄 / 과시 / 외양
권력	권력 / 종교권력의 성
가진 자	더 많은 부 / 가진 자 / 부자 / 막대한 부요 / 호의호식
폭력	폭력 / 투쟁 / 척결 / 끝장 / 정치투쟁
분열	전쟁 / 무력시위 / 분단 / 대립 / 적대감 / 불신 / 갈라짐 / 정치적 분열 / 갈등 / 반목 / 미움 / 비방 / 비판 / 증오 / 질시 / 편견 / 상호불신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 비참한 가난
비인간적 경제 모델	비인간적 경제 모델 / 자본주의 경쟁 / 경제적 살인
사회적 모순	사회악 / 불의 / 부정 / 부패
울부짖음	억울함 / 고통 / 슬픔 / 비통 / 울부짖음 / 좌절 / 체념 / 소외
물질주의	물질주의 / 소비주의 / 양적 성장 / 생명과 존엄에 대한 경시 / 무절제한 욕망 / 이기 / 매정함

표 6. 반(反)교황에 동일시된 가치들 (<한겨레>, <경향>)

가치	기사에 사용된 표현
권위	권위 / 군림 / 위선 / 엄청난 위세 / 독존 / 권위주의
권력	권력 / 권력자 / 고통주는 자 / 성공 / 기득권 독재 / 권력의 독점
가진 자	부자 / 부유한 이들 / 부유한 교회 / 강자 / 부자교인 / 상류계급 / 풍요 / 돈의 힘
폭력	폭력 / 정치적 억압
분열	대립 / 분열 / 갈등 / 반목 / 정치적 분열 / 충돌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 양극화 / 극단적인 빈부격차 / 불평등 / 패배자 양산
비인간적 경제 모델	비인간적 경제 모델 / 자본주의의 독재 / 신자유주의 / 무한경쟁의 사조 / 자본의 탐욕논리 / 규제 없는 자본주의 / 천박한 자본주의 / 자본의 압박 /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 새로운 형태의 가난
사회적 모순	모순 / 부조리 / 모순어법 / 부패 / 비리
울부짖음	고난 / 불안 / 억압 / 울부짖음 / 괴로움 / 서러움 / 눈물 / 인간적 모멸감 / 배제 / 절망 / 냉소 / 소외 / 비참한 가난
물질주의	물질주의 / 실용 / 막대한 부요 / 이윤 / 욕망의 노예 / 물질지향적 / 탐욕 / 성장 / 돈버는 것 / 생명의 상실 / 물신을 우상화 / 이기주의 / 비인간적 질서 / 죽음의 문화 / 야만 / 성공신화 / 경제적 욕망 / 생태 파괴 / 물질만능
행동하지 않음	타인의 울음에 무덤 / 우는 법을 잃어버린 도시 / 울음을 그친 사회 / 매몰찬 냉혹 / 냉소 / 행한 없는 믿음 / 냉대 / 피상성 / 웰빙종교 /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 침묵 / 행동하지 않음
가치중립	정치적 중립 / 엄정한 중립

표 7. 반(反)교황 가치들의 범주화

범주	반(反)교황의 가치
반(反) 종교인	권위, (행동하지 않음)
종교의 상대편	가진 자, 권력, 폭력, (가치중립)
현재의 상황	분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	비인간적 경제모델, 사회적 모순
모순의 결과	울부짖음
지배적 가치	물질주의

괄호는 진보 매체에만 나타난 가치

했지만, 진보 매체에서 더 강조되었다. 교황의 발언에서 비롯된 이런 가치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분열”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보수 매체에서는 주로 남북분단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었고 진보 매체에서는 계층의 문제와 국내정치에 주로 사용되었다.

〈표 7〉은 위에서 도출한 가치들이 지닌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유사한 가치들끼리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각 가치들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 부합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명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탈함과 격의 없음에 대한 호의적 평가는 권위를 앞세우는 대표적인 두 집단, 즉 정치 지도자 및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대비하여 표현되었다. 진보 매체에서는 교황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며 부정의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의 사회에 무관심한 모습과 대비했다.¹³⁾ 앞서 교황을 통해 종교인 일반의 자질에 대한 기대가 투영되었는데, 여기서는 종교인 일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황이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과 동일시되었듯이, 교황에 대립하는 존재로 가진 자, 권력, 폭력 등이 자리했는데, 이는 종교가 맞서서 항거해야 할 상대로 규정

13) 한편 보수 매체에서는 교황의 신학적 배경을 ‘해방신학’과 분리시키려는 듯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념과 분리함으로써 그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이념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한 불편함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교황이 된 그는 부패의 온상이던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고 마피아를 파문했다. 그러나 교황은 정의 실현을 앞세워 폭력을 정당화하는 해방신학과는 거리를 둔다. 영성을 결여한 사회 개혁 시도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평중, [윤평중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국 종교계가 배울 것”, 〈조선일보〉, 2014. 8. 15).

할 수 있다. 한편, 기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교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냉전, 분열, 혼란,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주로 교황의 자질과 그가 보여 주는 행동이 단지 종교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여기서 그를 통해 투영된 가치들은 이러한 현실과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읽을 수 있다.

또, 이런 부정적인 현실은 “사회적 모순”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교황이 직접 언급한 “비인간적 경제모델”을 위시하여 자본주의의 병폐, 규제 없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탐욕, 무한경쟁 등과 원칙/규칙을 지키지 않는 반칙 등이 사회적 모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울부짖음, 가난과 배제, 소외 등은 그 사회적 모순의 결과로 표현되며, 이는 앞서 교황과 동일시되었던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로 그려진다.

앞서 교황을 통해 현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대체하는 대안적 가치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지배적인 가치가 물질주의, 소비주의, 생명경시, 탐욕 등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황을 매개하는 사설과 칼럼들은 현재의 사회적 모순과 그 결과를 가져온 가치는 물질적 영역만을 중시하고 그 외의 영역은 경시, 파괴하는 문화라고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대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표 8〉은 이상의 논의를 이항대립의 형태로 단순화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향을 매개한 사설과 칼럼들에서는 언론이 생산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이를 극복할 대안적 가치들이 드러난다. 언론은 한국 사회가 현재 사회적 모순과 비인간적 경제모델이 만들어낸 각종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종교는 그러한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고 항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고 이들을 향한 위로와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 아니라, 물질주의적 지배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와 비물질적 영역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 줌으로써 대안성의 원천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표 8. 매개된 교황의 이항대립

교황	반(反)교황
소탈과 겸손, 인간미, 진실한 말, 사랑 위로, 소통, 실천 약자의 편, 저항/개혁, 정의, 연대 조화 사람 중심, 정신적 가치, 공동선, 관용	가진 자, 권력, 폭력 권위, (가치중립), (행동하지 않음) 비인간적 경제 모델, 사회적 모순 울부짖음, 분열, 경제적 불평등 물질주의

5. 나가는 말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사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시 언론이 매개한 종교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5개 중앙일간지 사실과 칼럼 분석을 통해 탐색했다. 분석을 통해 매체의 이념적 정향성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교황을 매개한 언론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종교가 담론적 차원에서 대안적 가치의 원천 및 제공자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세속 사회의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논의해 본다.

첫째, 한국 사회의 상징적, 담론적 지형에서 진보적, 보수적 가치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매개된 종교’에 의해 드러난 가치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기초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개입에 따라 보수적 목소리가 공고해져만 가는 저널리즘 영역이나, 신자유주의식 자기계발 담론이 지배하는 엔터테인먼트 영역, 양극단의 진영논리 속에서 가치를 경합하는 토론이 아닌 배설적 다툼으로 일관하는 디지털 담론영역 어디에서도 진보적, 대안적 가치의 자리는 공고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례는 매개된 종교가 대변하는 가치들이 갖는 진보적 성격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비록 잠정적이었지만 이런 진보적 가치들이 담론 영역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도하는 언론은 그의 발언과 행동에 드러난 편들기, 행동하기, 저항하기 등의 진보성을 큰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진보성의 승인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교황을 통해 드러난 진보적 가치들을 이념적 지형과는 관련 없는 종교적 가치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⁴⁾. 종교적 영역에서 진보 담론이 드러날 때, 정치나 경제 등 기타 영역에서보다 거부감을 낮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박진규, 2008). 진보적 가치가 종교와 연결되면 그 정치적 이념성은 약화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14)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교황을 이념 논리로부터 분리하려 한다. “일각에서 남미의 해방신학을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향’을 따지거나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절의 행동을 둘러싼 해묵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교황을 급진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하는 이념적 잣대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내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편 가르기 식으로 이용하거나, 교황의 발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교황은 ‘해결사’가 아니다.” (평화문에서 “가장 작은 것에 담겨지는 것”, <동아일보>, 2014. 8. 14) 역시 보수 매체인 <중앙일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황의 진보적 성향에 대한 교섭을 시도한다. “이런 말이 왜 쓰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좌파라고 하자 그는 마르크스주의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는 2000년이 되었다고 했다 한다. 통쾌했다”(신경숙, “뚜벅뚜벅 사람들 속으로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다”, <중앙일보>, 2014. 8. 15).

로 해석되어 이념적 진영논리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수 매체는 교황의 진보적 가치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교황의 발언과 행동을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오히려 매개된 종교를 통해 투영된 진보 담론이 이념적 편협성을 넘어서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종교와 연결된 진보적 가치는 이념적 지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며, 결국 담론적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대안성의 요체는 지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물질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매개된 종교가 투영하는 가치의 잠재력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번 교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긍정적 평가는 물질만능주의적 세태를 거스르는 그의 발언과 행동에 모아졌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든 평가와 보상을 돈과 물질로 환원하려는 물질주의적 문화에 있다는 세속 사회의 진단에 기초한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경제체제 및 구조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개혁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물질만능주의의 폐해와 그에 따른 고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공유되었다. 또한 공동선, 사람 중심,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신적 혹은 영적(spiritual) 영역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그것이 지니는 진보적 가치를 탐색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종교의 관계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셋째, 교황의 방한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종교가 제공하는 대안성에 대한 세속 사회의 기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언론이 교황을 통해 드러난 가치들을 “종교의 사회적 책임¹⁵⁾” 혹은 “본래 종교의 모습¹⁶⁾”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기대가 제도종교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매개된 종교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종교가 대안적 가치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종교

15)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커다란 숙제를 남겨 놓았다. 세계사에서 많은 경우에 종교는 인간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년)다”(김진, [중앙시평] “북한 주민 고통에 침묵한 교황”, 〈중앙일보〉, 2014. 8. 20).

16)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 종교계는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되찾고,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교황의 방한 활동은 본래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알려주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의 메시지는 우리 종교계에 준 큰 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계의 각성과 혁신을 기대한다”(사설 “교황의 메시지, 종교계 전체의 각성 계기로”(〈한겨레〉, 2014. 8. 20).

(mediated religion)'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매개된 종교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관심과 분석이 요청된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제기된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언론, 특히 보수언론이 승인한 것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애초에 독일 철학에서 매개(mediation)는 “이데올로기적 구성(ideological construction)”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Livingstone, 2009; Williams, 1983)에서 비판적인 접근은 더욱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 보수 언론은 진보적 가치와 담론을 채택하고 승인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개혁과 구조의 문제로 연결하려는 진보 언론과는 차이를 보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담론적 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보수 언론은 교황의 발언과 행보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교황의 진보성에 대한 승인을 종교라는 특수한 영역으로만 한정, 축소했다. 이를 통해 교황과 연결된 진보적 가치를 채택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는다. 둘째, 보수 언론의 재현 방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우리 사회와 다른 맥락에서 온 “외부자(outsider)”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황의 발언과 행보를 내부의 쟁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로 이어짐으로써 그의 진보성을 승인하는 것과 자신들의 보수적 정체성을 교섭한다. 셋째, 언론이 매개한 이번 교황방한은 일상과 분리된 “일탈적 삽화(deviant episode)”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사실상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재현방식은 교황에 대한 열광적 반응, 그의 진보성에 대한 환호와 승인을 일시적, 잠정적, 일탈적 이벤트로 치환한다. 따라서 교황이 떠난 후 진보성의 효력은 곧 상실되며 그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담론적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설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언론의 담론 전략이 낳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매개한 언론보도가 진보적 가치를 담론영역의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에 잠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이런 평가를 경험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론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 가치제공이 사회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가치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질서¹⁷⁾를 향한 대중적 상상

17)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방한 당시 <경인일보>에 게재된 다음 기사처럼 언론은 교황을 통해 제시된 대안적 삶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낮은 곳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헌신을 보여 준 교황의 방

력(popular imagination)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매개된 종교가 말하는 대안적 삶이 담론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현재의 가치와 질서를 대체할 대안적 가치와 질서를 꿈꾸며 이를 욕망하는 대중들의 상상력으로 확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개된 종교와 관련한 의미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용 과정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행보는, 갈등의 꼭짓점에서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지금과 다른 삶'을 성찰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중략) '평화'와 '희망'을 강조하며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인 물질주의와 생명경시 풍토, 패배자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정신적 부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한국 사회에 요청했다"(유은총, "4박5일, 힐링 코리아," <경인일보>, 2014. 8. 19.).

참고 문헌

- 강인철 (2013).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1945-2012>.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강인철 (2012).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김민수 (2014, 10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태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14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종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서울: 고려대학교.
- 김성건 (1991).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 민영사.
- 박진규 (2011).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9권, 285-329.
- 박진규 (2009).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309-329.
- 박진규 (2008).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6호, 110-148.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 Brewster, Trans.). London: New Left Books. 127-188.
- Bellah, R. (1975). *The broken covenant*. New York: Seabury Press.
- Eagleton, T. (2009). *Reason, faith, and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God debate*. 강현주(역) (2010).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서울: 모멘토.
- Edgar, A., & Sedgwick, P. (1999). *Key concepts in cultural theory*. London, UK: Routledge.
- Glock C., & Stark, R. (1965).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IL: Rand McNall & Co.
- Hall, S. (1975). Introduction. In A. C. H. Smith, E. Immerzi, & T. Blackwell(Eds.), *Paper voices: The popular press and social change, 1935-1965* (pp. 11-24). London, England: Chatto and Windus.
- Hjarvard, S. (2008). The mediatization of religion: A theory of the media as agents of religious change. *Northern Lights 2008*, 6, 9-26.
- Hoover, S. (2014, January). *Media in the global imaginary of religion*. Address delivered at the opening plenary of the Conference on Media and Religion: The Global View. Boulder, CO.
- Livingstone, S. (2009). On the mediation of everything: ICA Presidential address 2008.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18.
- Lövheim, M., & Lynch, G. (2011). The mediatization of religion debate: An introduction. *Culture and Religion*. 12(2), 111-117.
- Lundby, K. (2009). Introduction: ‘Mediatization’ as key. In Lundby, K.(Ed.), *Mediatization: Concept, changes, consequences* (pp. 1-18). New York, NY: Peter Lang.
- Marx, K. (1964). *Karl Marx: Early writings*. New York, NY: McGraw-Hill.
- O’toole, R. (1984). *Religion: Classic sociological approaches*. Toronto: McGraw-Hill Ryerson.
- Park, J. K. (2011, August). “What a secular society expects from religion?”: *Analysis of the media’s representation of the death of religious figur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Media, Religion and Culture. University of Hyderabad, India.

-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How much is enough: Money and the good life*. 김영희(역) (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서울: 부키.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 Turner, V. (1977). Variations on a theme of liminality. In S.F. Moore, & B.G. Myerhoff(Eds.), *Secular ritual* (pp. 36-52). Amsterdam: Van Goreum.
- Williams, R.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김성기·유리 (역) (2010). <키워드>. 서울: 민음사.

투고일자: 2015. 01. 31. 게재확정일자: 2015. 03. 23. 최종수정일자: 2015. 03. 26.

Mediated Religion and Social Change

Discursive Construction of Pope Francis's Visit to Korea by Journalism

Jinkyu Park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defines Pope Francis's visit to Korea in August 2014 and the reactions from journalism to it as a case to show the discursive potential of mediated religion for social change. It analyzes the editorials and the columns on the Pope in five daily newspapers including the Chosunilbo, the Dong-A Ilbo, the JoongAng Daily, the Hankyoreh, and the Kyunghyang Shinmun. Since the Pope receives positive evaluations for his remarks and behaviors during the visit from most of those articles, this research categorizes the values identified with the Pope and those with the "anti-Pope" into a form of binary oppositions, and interpret the meanings of the rhetorical strateg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a consistent narrative is constructed by journalism regarding the harsh reality of Korea and the ways to overcome its structural problems. Based on the findings, I argue that mediated religion in this case is expected by the secular society to do its role for social change by being a provider of progressive and alternative values.

KEYWORDS mediated religion, journalism, social change, Pope Francis, progressive discourse